

하나님이  
기도에 응  
답하시는  
방법



#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어머니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서 아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기만 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반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절히 증언하는 이들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또 다른 수천 명은 자신들이 구한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허락하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만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다른 이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기도는 기독교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다른 많은 종교의 신봉자들도 널리 실천한다. 기도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더 높은 권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보다 높고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기도로 그분과 접촉하려는 모든 이의 진실한 소망을 기뻐하시는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그분의 주권적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보편적인 기도 욕구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그의 성품 속에 있는 신성한 형상은 크게 흐려졌고, 많은 경우 거의 지워졌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도하려는 욕구이다.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

명이 있을지라도, 종종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왜 어떤 이들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다른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많은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하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의 태도, 그리고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할지라도 그들의 방법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할 만한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야고보서 4:3).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할 특권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 기도의 목적

기도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지상에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내는 수단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정해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이 계획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지 않으신 축복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형의 기도를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피조물이 자신들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과 목소리로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기도도 있습니다. 창조주의 성품에 담긴 영광스러운 속성들—그분의 지혜, 공의, 사랑,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또한 적절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신성한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이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거기서 자비를 얻고 모든 필요할 때에 도움을 얻는 은혜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16

물론 주님께 특정 축복이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건강을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를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 중 보호를 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인 적대국 국민들이 각자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이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며,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야 한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을 정당화해 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전장에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고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인간 피조물의 번덕과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며, 아무리 많은 기도로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국가들—심지어 유엔조차도—을 바라보시며 우리나라 세계 전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지 배우시지 않는다. 그의 백성의 기도의 설득력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의해 의견이 흔들리거나 계획이 바뀌는 신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장 먼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례가 이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을 지경이로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복음 26:38,39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자이자 구세주로서 수치와 죽음을 겪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어떤 의미가 되든, 무엇보다도 신성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 직전에도 이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스승을 보호하려 칼을 뽑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8:10,11)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1:29).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려는 뜻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한때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의 무게는 그것에 두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한,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7). 이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특권이

있다는 확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붙이신 조건을 주목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된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되었다면, 우리는 자기 뜻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머리이신 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기도할 때 , 우리는 유리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13).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그 생각에 부합하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외에는 그분께 복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간결한 기도 지침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누가복음 11:1,2). 성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누가복음 3:23,38)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고( )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온 인류 역시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방인이므로,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삶을 바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갈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태도는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가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드러져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요한복음 15:16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게 정죄받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다른 축복들을 구할 특권을 누리십니다(히브리서 4:16).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감히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기도문의 본을 따를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한 축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첫 번째 간구에서 드러난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기도해 온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소망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국의 의로운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건강, 영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류가 갈망하고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축복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왕국을 통해 미리 예정되고 마련되었습니다. 이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포함하여 백성들에게 보장될 축복들의 많은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도움 요청에 귀를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은 그들이 감히 희망해 본 것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전장에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경우를 보라.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며, 그가 가족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녀의 첫 생각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 자비가 없으시다일 수 있다. 기도할 때 상상조차 못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귀환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녀는 얼마나 다르게 느끼겠는가!

어머니는 때로 자녀가 죽음의 잠에 빠져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혀 모른다. 결국 어머니와 아들은 모두 죽어가는 종족의 일원이며, 전장에서 죽는 것과 나중에 노환으로 죽는 것의 차이는 영원의 끝없는 흐름에 비하면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바로 이 관점에서 기도의 신비로운 주제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방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지 않으셨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미약한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해진 이 생의 길이는 매우 짧다. 우리는 성취를 우리가 아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성숙에 이르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시편 41:13; 90:2)이라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짧은 생애 안에 어떤 계획의 특정 단계를 완성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요청과 관련된 일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특별한 축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내일이 아니라 모레에야 온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응답이 왔을 때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도 그분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날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날들은 영겁의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내일'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시대에, 세상이 정당하게 갈망해 왔고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간구해 온 모든 축복이 인류에게 풍성히 쏟아질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도다... 우리는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9

##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이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다. 이 기도는 지상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구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어떤 종류의 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구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일들에 대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허락하셨는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은 땅에서도 동일한 정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땅에 존재하는 악들이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영적 영역에 있는 이들의 삶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전쟁은 신성한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 기도는 하나님이 평화를 세우시려는 계획, 즉 그분의 왕국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부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통치와 평화가 끝없이 확장될 것이다." (이사야 9:6,7)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고자 하는 인류의 갈망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국제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전쟁이 불가피해 보일 때, 양측의 경건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 갈등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올 것임을 압니다. 이는 국가들 이 마침내 실행 가능한 평화

방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지상의 통치권을 장악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에서 "주님의 산"으로 상징되며, 미가 4:1-4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나라들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았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무장 해제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가!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 그리고 나라들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자. 그 뜻은 곧 왕국의 방식이 될 것이다. 다윗이 예언했듯이,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46:9

## “죽음이 다시는 없을 것”

질병과 죽음은 우리 첫 조상의 죄로 인해 생겨났으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악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중병에 걸린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까? 그렇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모든 이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는 “그 날에 그 땅에 사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이사야 33:24).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축복을 묘사하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죽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5,26).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하늘 새 땅( )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결과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4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창조주가 이 축복들을 단순히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겸손과 순종으로 이를 구하는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더 큰 섭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가 피조물을 위해 마련하신 공급은 인간의 지혜로 구상한 것보다 항상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건강과 보호,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언급한 한 어머니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다.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으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라. 라헬이 자식들을 위하여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선지자는 이어 말합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으라. 네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예레미야 31:15,16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이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에 있는 모든 이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는 우리의

간구인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 즉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28,29

사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사도 베드로가 "회복"이라고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20,21

##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부름, 혹은 최소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한다. 노년을 맞이하는 거의 모든 이에게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과

돌보심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재정적 안정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세상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수백만 명이 존재합니다. 문자 그대로 굶주리며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조차 없는 이들도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에 더 유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모든 이들을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섭리에 기뻐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경제적 안정을 상징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한다는 개념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하여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미가 4:4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실 복에 대해 비슷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살 집을 짓지 않을 것이며, 심고 다른 사람이 먹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한 열매를 오랫동안 누릴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세상을 다스릴 왕국의 의로운 법을 계속 순종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사야 65:20-25

이사야의 이 예언장은 그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쏟아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들으리라.”(24절)  
지금까지 대다수의 경험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구한 은혜를 베풀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역경 속에서의 경험이 영원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세워지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죽어가는 인류가 갈망하는 축복들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즉각적이어서 마치 간구자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사야 65:24



##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는 세상의 경건한 사람들이 흔히 구하지만 자주 받지 못하는 많은 물질적 축복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창세기 12:3) 이 정당한 물질적 축복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들기 시작할 때가 다가옴을 기뻐합니다. 한편,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특권을 가진, 그분께 전념한 백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에, 자신들의

당장 필요한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이는 매우 절제된 요청이며, 올바른 마음으로 드릴 때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신다는 인정이며, 그분이 지혜롭게 마련하신 어떤 공급에도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영적 필요성이 물질적 필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빵은 진리, 즉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 신성한 계획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 양식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분의 뜻과 일치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 구세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랑이 가득한 마음( )을 가진 자들만이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여 그분께 죄를 지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 하시나, 오직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조건으로 하십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진실함을 시험하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들의 아담적 결함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가치로 덮여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유혹은 어머니 하와의 유혹이었다. 그녀는 타락한 루시퍼가 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며, 유혹이라는 단어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거나 유인하는 모든 노력, 유혹, 권유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모든 유혹자 중 가장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의의 길로 유인하려는 자들에게

죄악적인 유혹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하고 수많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야고보서 1:13)고 기록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확신을 주장한다.

이와 대조되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희망을 주는가! 사탄, 즉 대속임수는 수세기에 걸쳐 인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행사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다—죄와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 "이 악한 세상"이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1:4). 그러나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사냥꾼이 세상에 퍼뜨린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3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탄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덫에 걸리게 할 수 없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우리를 매일 사탄의 오류와 죄의 함정에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그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시나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34:7).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인가! 우리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어 얼마나 기쁘는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온 교회에게는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4,6). 예수님은 지옥의 문이 그의 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약속이

성취됨에 따라 지옥의 문—죽음의 상태—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죽은 모든 이들이 죽음에서 풀려나 영광 중에 높이 들려 그의 천년 왕국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현재 복음 시대의 모든 세기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이 구원이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를 알고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그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에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도 그대에 마찬가지로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디모데후서 4:8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종말에 관해 하신 위대한 예언—그 예언에서 그분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상황들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지금 살아 있는 제자들은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31,28).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들"이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임이, 지금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 중 마지막 남은 자들이 구원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영광으로 높이 들려질 것이며, 그때 비로소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신 왕국의 축복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류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단지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갈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간구의 응답이 우리의 다른 간구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도 부분조차도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은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온 인류에게 풍성한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개인적인 인도와 용서, 영적 힘을 구할 때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즉 온 인류에 대한 관심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죽음은 승리로 삼켜지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이사야 25:6-8; 요한계시록 21:1-5

무엇보다도, 모든 이의 영원한 기쁨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마련되었으며, 곧 "평화의 왕"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평화를 , 세상의 구속자이자 구세주를 통해 모든 이에게 건강과 생명을 제공할 것임을 알리십시오.